

현안과 과제

■ 중국인 전문가의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□ 중국인 전문가의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

■ 중국 경제, 지속 둔화 가능성 확대

최근 중국 경제가 7%대 초반 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, 향후 2020년까지는 연평균 6%대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있다. 한편, 중국정부의 경제 부문별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경기 둔화는 물론 금융 리스크도 확대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2015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치인 7.0% 달성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인 전문가가 바라본 중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■ 중국인 전문가가 바라본 중국 경제

2015년 9월 1~15일까지 교수, 연구원, 금융 전문가, 정부기관 공무원, 기업인 등 중국인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국 경제 진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중국 경기 진단, 금융 시장 전망, 향후 중국 경기 전망 등 3가지 측면에서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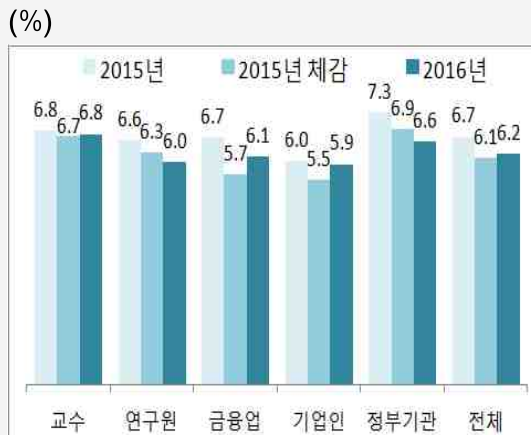
(최근 중국 경기 진단) 첫째, 대다수의 중국인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기는 지속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. 중국인 전문가의 약 81%가 최근 중국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 개별 전문가별로는 연구원 및 정부기관 공무원의 66.7%가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, 금융 전문가의 50.0%는 현재 중국 경기 둔화세가 가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. **둘째,** 전반적으로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 전체 전문가 중 51.3%는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. 개별 전문가별로는 교수, 연구원, 정부기관 공무원의 각각 60% 이상이 중국 정부의 최근 경기 부양책에 긍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, 금융 전문가 및 기업인의 각각 55.5%, 71.5%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. **셋째,** 최근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보았다. 중국인 전문가들의 22.6%는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응답했고, 전체 전문가의 각각 17.7%를 차지한 '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'과 '부동산 버블 붕괴'를 다음으로 심각한 리스크로 보았다.

(금융 시장 전망) 첫째, 중국인 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했다. 전체 전문가의 69.7%는 2015년 말 대비 2016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하된다고 응답했고, 이중 35.5%는 위안화가 5~10% 미만 평가 절하를 전망했다. 한편, 10% 이상의 평가 절하도 동기준 19.7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. **둘째,** 증시 폭락 등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0%가 향후 불안 양상 지속을 예상했다. 2015년 6월 발생한 증시 폭락 등 금융 불안에 대해 전체 전문가의 33.8%는 '갑작스런 주가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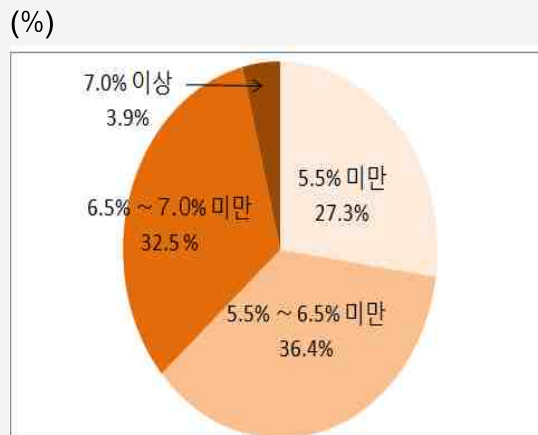
없다'라고 응답했고, '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전까지 불안 양상이 지속'될 것이라는 의견도 전체의 33.8%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의 총 67.6%는 향후 증시 불안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. 개별 전문가별로는 연구원의 58.3%가 '최근 증시 불안은 일시적, 향후 안정화될 전망'이라고 제시한 반면 나머지 전문가들은 증시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.

(향후 경기 전망) 첫째, 수출 경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였다. 전체 전문가의 72.6%는 중국 수출 경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했다. **둘째,** 중국 경기의 회복시기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6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 전체 응답자의 약 92%는 중국 경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응답했다. **셋째,** 2015년 중국 경제는 6%대 성장을 예상했고, 향후 5년간 6.5%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문가 80인 평균 6.7%로 예상했으나, 동년 체감 성장률은 이보다 0.6%p 낮은 6.1%로 예상했다. 한편, 전체 응답자의 63.7%는 중국 경제가 향후 5년간 6.5%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응답했다.

< 중국인 전문가들이 본 향후 2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>



< '16~20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결과.

■ 시사점

중국인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결과 한국은 6%대 중반 내외 성장 시대의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. **첫째,** 중국의 정책 및 경제 구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. **둘째,** 고급 소비재 수출 확대 등 내수 중심 성장 시대의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. **셋째,** 증시 불안 등 중국발 금융 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안전판 지속 강화를 해야 한다. **넷째,** 혁신 기술 개발 등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상대적으로 對 중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. **마지막으로** 한중 FTA 뿐 아니라, AIB 가입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.

1. 중국 경제, 지속 둔화 가능성 확대

○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부터 7%대에서 6%대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- 최근 들어 다시 정부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중국 경제

- 1990년대 이후 중국 경제가 정부 목표 성장치를 처음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(정부 목표치 8.0%, 실적치 7.8%)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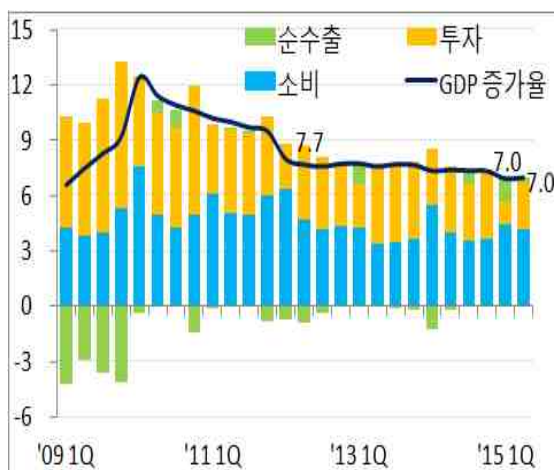
- 이후 16년만인 2014년에도 실적치 7.4%를 기록, 목표치 7.5%를 0.1%p 하회

- 2015년에도 정부 성장 목표치 미달성 우려 고조

- 2015년 2/4분기 중국의 GDP 증가율은 7.0%로 13분기 연속 7%대 성장이 지속
- 더욱이 2015~2020년까지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평균 6.0%대 초반 성장에 예상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¹⁾

○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전문가가 바라본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 기여도 >
(%, %p)



자료 :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< 중국 GDP 목표치와 실적치 추이 >
(%)



자료 : CEIC, IMF(2015.10).

주 : 2015~2016년은 IMF 전망치 기준.

1) IMF에 따르면 2015~2020년까지 연평균 중국 경제성장률은 6.2%에 그칠 전망이다.

2. 중국인 전문가가 바라본 중국 경제

가. 조사 개요

- 조사 기간 : 2015년 9월 1일 ~ 15일
- 조사 대상 : 중국 현지 중국인 교수, 연구원, 금융 전문가, 정부기관, 기업인 등 5개 부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
 - 설문 표본은 교수 14명, 연구원 12명, 금융 전문가 36명, 정부기관 공무원 7명, 기업인 9명, 기타 2명 등 전체 80명
 - 단, 복수 응답 혹은 누락 응답은 통계에서 제외
- 조사 내용 :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 - 최근 중국 경제 현황, 경기 부양 효과,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, 위안화 환율 전망 및 중국 증시 전망 등과 같은 금융시장 리스크, 외수 경기 전망, 향후 중국 경제 전망 등
- 전체 설문 조사 문항은 총 11개
 - 중국 경기 상황, 경기부양책 효과, 중국 경제 리스크 등 현재 중국 경기를 판단하는 3개 문항, 금융 시장 3문항, 중국 경기 회복 여부 및 향후 경제 전망 5개 문항 등 총 11개 문항

< 중국인 전문가 대상 설문 내용 >

구 분	주요 내용
조사 문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체 11개 문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경기 상황 : 1개 문항 - 중국 경기 부양 효과 : 1개 문항 - 중국 경제 직면 리스크 : 1개 문항 - 위안화 가치 전망 : 2개 문항 - 중국 증시 전망 : 1개 문항 - 중국 수출 및 경기 회복 시기 : 2개 문항 -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: 3개 문항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나. 조사 결과

① 최근 중국 경기 진단

○ (경기 현황) 중국인 전문가의 약 81%는 최근 중국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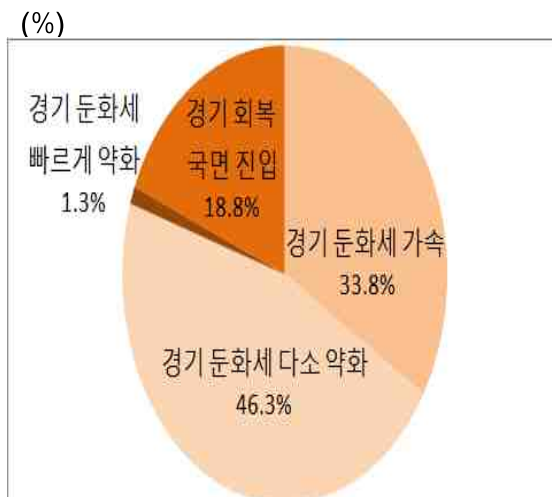
- 대다수의 중국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응답

- 중국인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기에 대해 ‘중국 경기 둔화세가 다소 약화’라는 응답이 전체의 46.3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또, ‘중국 경기 둔화세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33.8%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
- 한편, ‘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’했다는 의견은 전체 18.8%에 불과

- 전문가별로는 금융 전문가와 기업인이 최근 중국 경기에 대해 가장 비관적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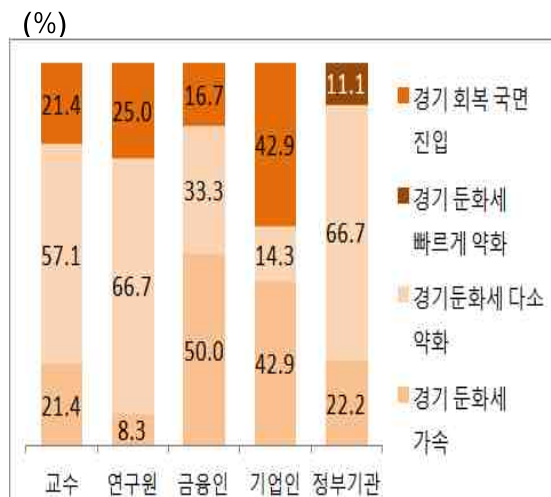
- 중국인 전문가 중 연구원 및 정부기관 공무원들 중 66.7%가 최근 중국 경기는 ‘중국 경기 둔화세가 다소 약화’되고 있다고 나타남
- 반면, 금융 전문가의 50.0%는 ‘중국 경기 둔화세가 가속되는 것으로 응답
- 한편, 기업인의 42.9%는 ‘중국 경기 둔화세가 가속’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, 42.9%는 ‘경기 회복 국면 진입’으로 대답

< 중국 경기 현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중국 경기 현황 : 전문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경기 부양책 효과)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업인들은 경기 부양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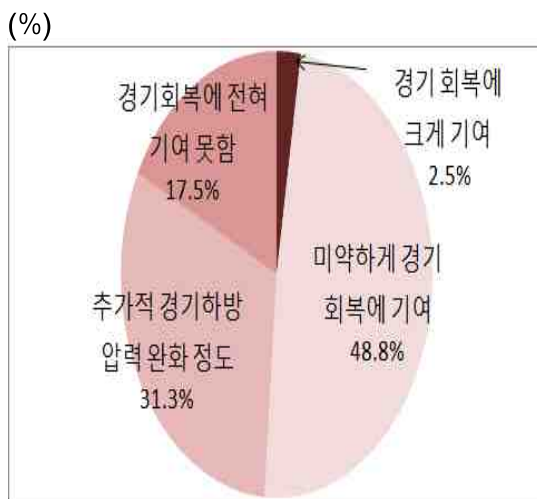
- 대다수의 중국인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이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- 전체 전문가의 51.3%가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
- 반면, '추가적인 경기 하방 압력 완화 정도에 그침' 의견과 '경기 회복에 전혀 기여 못한다' 등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 48.8%를 차지

- 전문가별로는 금융 전문가와 기업인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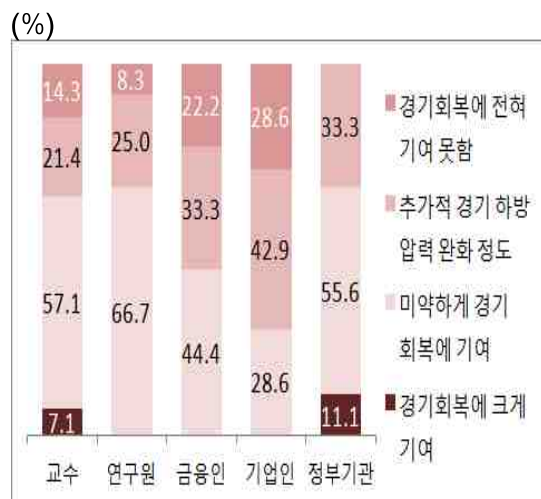
- 중국 정부의 경기에 대해 교수, 연구원, 정부기관 공무원 등의 각각 64.2%, 66.7%, 66.7%는 경기 부양 효과에 긍정적 견해를 보임
- 금융 전문가의 44.4%는 '미약하게 경기 회복에 기여'한다고 말한 반면 '추가적 경기 하방 압력 완화 정도에 그칠 것'에 33.3%, '경기회복에 전혀 기여 못한다' 22.2% 등 다소 부정적 의견도 제시
- 더욱이 기업인의 29.0%는 '경기 회복에 전혀 기여 못하고 있다'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

< 경기 부양책 효과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경기 부양 효과 : 전문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) 최근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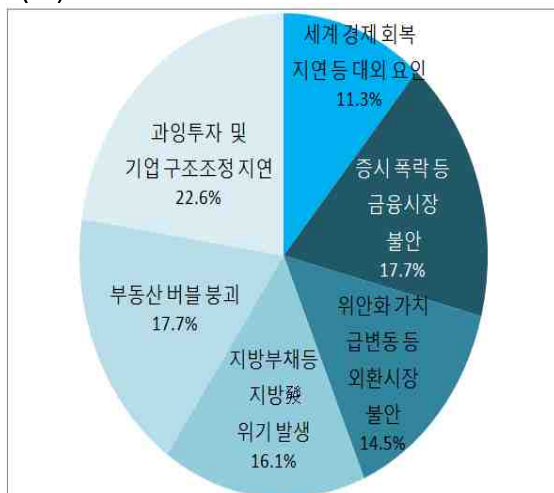
- 전체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으로 응답

- 중국인 전문가들은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(22.6%)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판단
- 이어서 전체 중 각각 17.7%를 차지한 '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' 및 '부동산 버블 붕괴'가 두 번째 리스크로 간주

- 전문가별로는 교수와 정부기관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을 최대 리스크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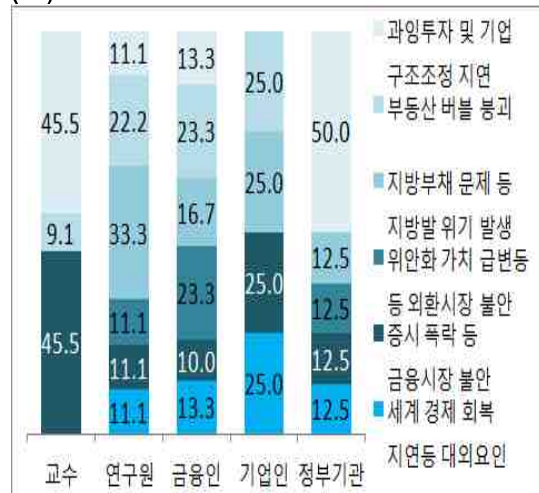
- 교수와 정부기관 공무원의 각각 45.5%, 50.0%가 중국 최대 리스크를 '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'으로 응답
- 반면, 연구원의 33.3%는 '지방부채 문제 등 지방발 위기 발생'을, 금융 전문가는 '위안화 가치 급변동 등 외환시장 불안'과 '부동산 버블 붕괴'를 각각 23.3%로 대답,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우려

<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> (%)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: 전문가별 >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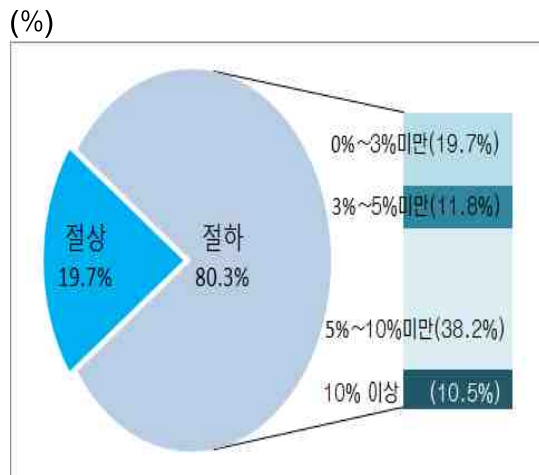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② 금융 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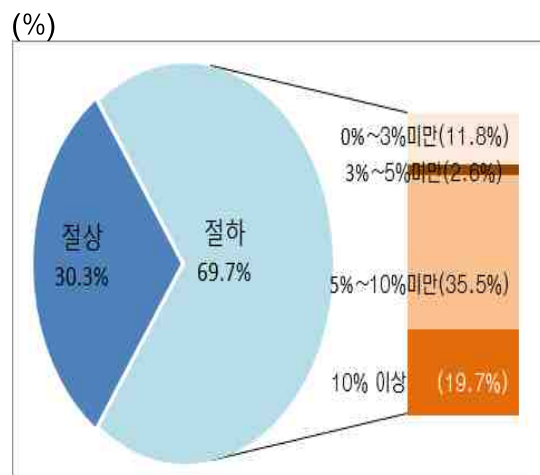
- (위안화 환율) 중국인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안화 환율이 지속 평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
 - 대다수의 전문가는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
 - 전체 전문가의 80.3%는 2015년 8월 31일 대비 2015년 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하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평가 절하를 전망한 전문가 중 19.7%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0%~3% 미만 평가 절하할 것으로 응답
 - 특히, 동기준 48.7%의 응답자는 5% 이상 위안화가 평가 절하할 것으로 전망
 - 더욱이 2015년 말 대비 2016년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전체 전문가 중 약 70%가 평가 절하로 응답
 - 전체 전문가 중 69.7%의 응답자는 2015년 말 대비 2016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하할 것으로 예상
 - 특히,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예상한 전문가 중 35.5%는 동기준 위안화가 5%~10%미만 평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
 - 한편, 10% 이상의 평가 절하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도 위안화 평가 절하를 예상한 전문가의 19.7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

< 2015년 말 환율 변동폭 전망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2015년 8월 31일 대비 2015년 말 위안화 가치 변동.

< 2015년 말 대비 2016년 위안화 변동폭 전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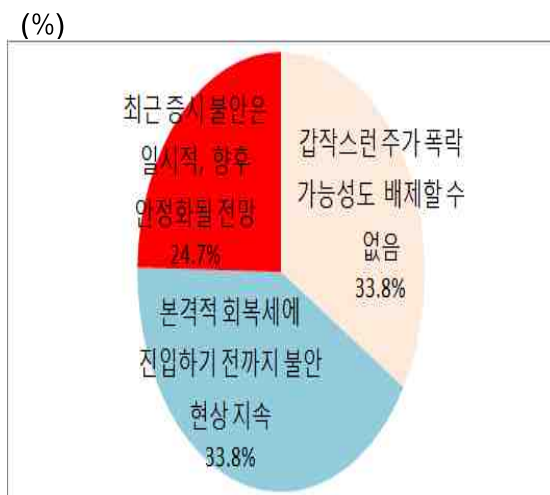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2) 중국은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후 동월 평균 6.3위안/달러를 기록, 이는 7월 평균 6.1위안/달러보다 약 3.2% 절하된 수준.

○ (증시 불안) 중국인 전문가의 약 70%가 향후 증시 폭락 등 금융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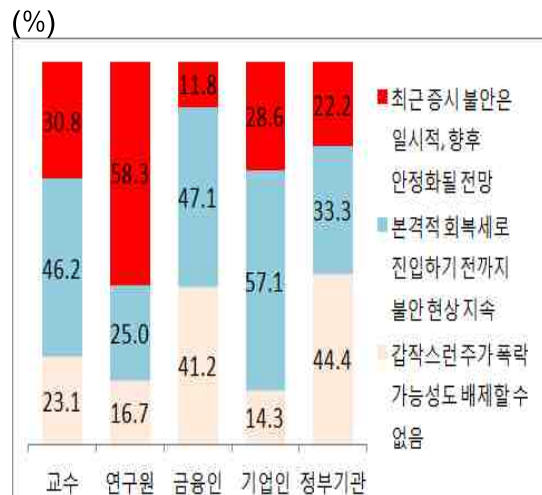
- 중국 증시 향방에 대해서 전체 전문가들의 68%는 향후 증시 불안 지속 가능성을 우려
 - 올해 6월 발생한 증시 폭락³⁾ 등 금융 불안에 대해 전체 전문가의 33.8%는 '갑작스런 주가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'라고 응답
 - 또, '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전까지 불안 현상이 지속될 것'이라는 의견도 전체의 33.8%를 차지
 - 한편, 전체 응답자 중 24.7%는 '최근 증시 불안은 일시적, 향후 안정화될 전망'이라는 견해를 보임
- 전문가별로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향후 증시 불안 양상 지속을 전망
 - 연구원의 58.3%는 '최근 증시 불안은 일시적, 향후 안정화될 전망'이라고 응답
 - 하지만, 금융 전문가 및 정부기관 공무원의 각각 41.2%, 44.4%는 '갑작스런 주가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'로 나타남
 - 교수와 기업인의 각각 46.2%, 57.1%도 '본격적 회복세로 진입하기 전까지 불안 현상이 지속'된다는 견해를 보임

< 중국 증시 향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중국 증시 향방 : 전문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3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6월 12일 5,166.4p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, 2015년 9월 11일 현재 3,200.2p로 약 38% 하락하는 등 증시 불안이 지속.

③ 향후 경기 전망

○ (수출 경기 회복 시기)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2016년 하반기 이후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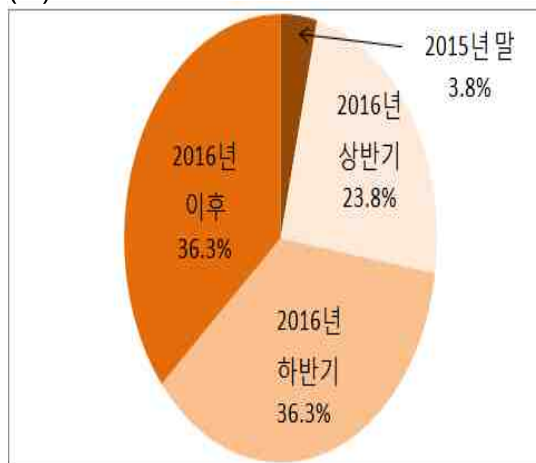
- 중국 수출 경기는 대부분 2016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를 2015년 말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전체의 3.8%에 불과했으나, 동기준 2016년 상반기부터는 23.8%로 나타남
 - 전체 전문가 중 72.6%에 이르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를 2016년 하반기부터로 전망

- 전문가별로는 연구원 및 기업인의 80% 이상이 중국 수출 경기 회복시기를 2016년 하반기 부터로 전망

- 정부기관 공무원의 22.2%는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를 2015년 말부터로 기대
- 또, 교수 및 금융 전문가의 각각 42.9%, 30.6%는 수출 경기 회복을 2016년 상반기부터로 예상
- 하지만, 개별 직군별 전문가들의 50.0% 이상은 중국 수출 경기 회복이 2016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응답
- 특히, 연구원의 대부분은 동기준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응답하는 등 올해 안에 외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

<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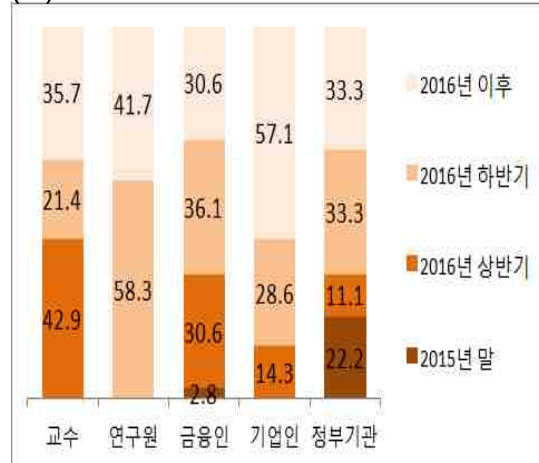
(%)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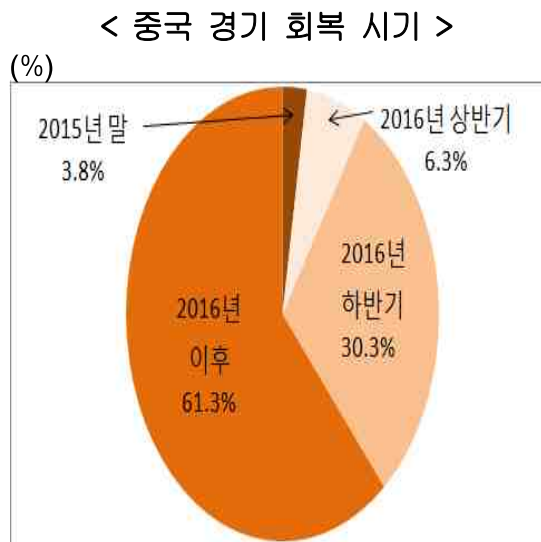
< 중국 수출 경기 회복 시기 : 전문가별 >

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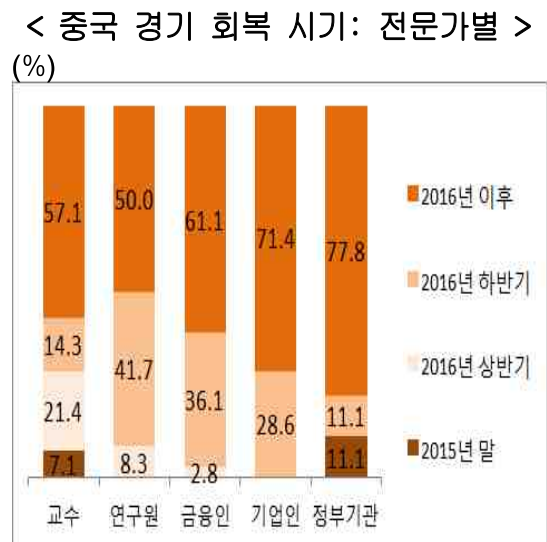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(중국 경기 회복 시기) 중국 경제가 2016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중국인 전문가의 약 90%는 중국 경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
 - 중국 경기가 2015년 말부터 회복된다고 전망한 중국인 전문가들은 전체 응답자 중 3.8%에 불과
 - 전체 응답자의 30.3%는 2016년 하반기 부터로 예상하고 있으며, 동기준 61.3%는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응답함
 - 전문가별로는 각 직업군의 과반수가 2016년 이후부터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응답
 - 교수 및 정부기관 공무원의 각각 7.1%, 11.1%는 중국 경기가 2015년 말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연구원 및 금융 전문가의 각각 41.7%, 36.1%는 2016년 상반기부터 중국 경기 회복을 전망
 - 하지만, 각 직업군의 과반수 이상은 모두 중국 경기가 2016년 이후에 가거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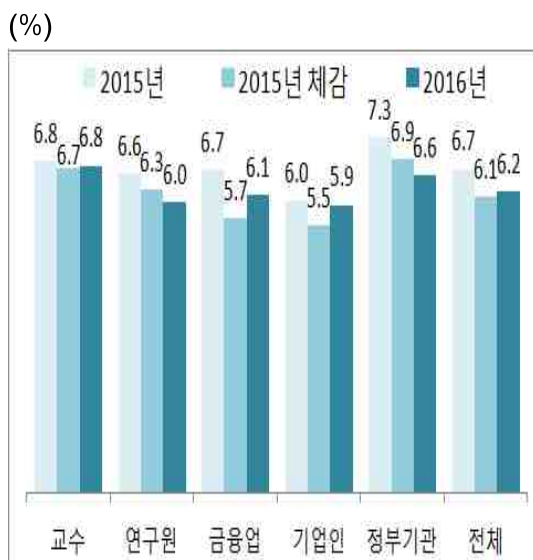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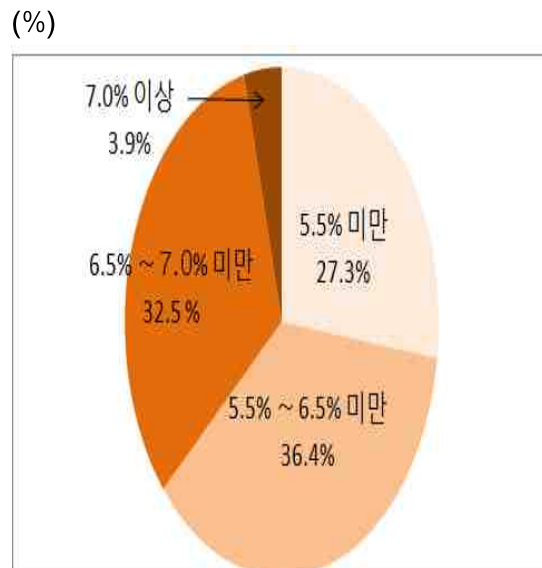
○ (향후 전망) 2015년 중국 경제는 6%대 성장을 예상하였고, 향후 5년간 6.5%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
- 중국인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,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6%대 중후반을 예상
 -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80인 평균 6.7%로 예상했으며, 동일 전문가에 올해 체감되는 성장률은 이보다 0.6%p 낮은 6.1%로 예상
 - 또, 2016년은 2015년 예상치보다 0.5%p 낮은 6.2%로 전망했으며, 이중 기업인은 2015년 6.0%, 2016년 5.9%로 예상, 다른 직업군보다 낮은 전망치 제시
- 한편,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전체 응답자의 63.7%가 6.5% 미만의 성장을 예상
 - 2016~202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전체 응답자 77명의 36.4%인 28명이 6.5% 이상을 전망
 - 반면, 동기준 63.7%인 49명의 응답자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는 6.5% 미만의 성장을 예상, 5.5% 이하를 예상한 응답자도 전체의 27.3%에 이룸

< 중국인 전문가들이 본 향후 2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>



< '16~20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결과.

3. 시사점

- 중국인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 한국은 6%대 중반 내외 성장 시대의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
- 첫째, 중국의 정책 변화 및 경제 구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
 - 13차 5개년 계획 등 향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함
 -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, 對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대책도 강구해야 함
- 둘째, 내수 중심 성장 시대의 중국시장 공략 전략 강화 모색
 - 중국의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차이나 인사이드 양상이 가속되는 양상에 대비한 국내 소재·부품 등 중간재의 對 중국 수출 패턴 고급화 전략 모색
 - 중국 내수시장의 질적 향상에 대비해 차별화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도 강구
- 셋째, 중국발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지속 강화
 - 최근 중국의 증시 불안,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 등 금융 부문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 검토도 필요
- 넷째,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상대적으로 對 중국 경쟁력 약화에도 대응
 - 위안화 평가 절하가 지속될 경우, 對 중국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혁신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시급
- 마지막으로, 한중 FTA뿐 아니라, AIIB 가입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방안 강구 필요
 - 한중 FTA, AIIB 등 최근 한중 경제협력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손실 최소화 필요
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 정민선 임연구원 (2072-6220, chungm@hri.co.kr)
 이부형 이사대우 (2072-6306, leehuh@hri.co.kr)